355일만에 치른 용산참사 희생자 영결식 현장

“철거민에 희망등불 밝혀주길”

“우리와 같은 철거민들이 이 땅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해 저 위태로운 하늘 끝 망루로 오르는 일이 없도록 이 잘못된 재개발을 바로잡아 주세요.” 지난 9일 낮 서울역광장. 355일만에 남편과 아버지의 영결식을 치르게 된 용산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영단에 올라 덤덤한 목소리로 국민앞에 이같이 호소했다. 유족을 대표해 나선 고 이상림씨의 부인 전재숙씨는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진실을 밝혀서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가운 감방에 갇힌 내 아들, 우리의 동료들이 하루빨리 무죄로 풀려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목이 쉬다못해 갈라진 음성으로 절규하듯 말했다.

지난해 1월19일, 용산4지구 철거민 세입자들은 철거민생존권을 촉구하면서 한강로변 남일당 건물에서 망루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하루만인 1월20일 경찰진압으로 5명의 철거민이 숨졌다. 이날 영결식은 희생자들이 저세상으로 간지 1년여만에 봉행됐다. 참석자 5000여명은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고인을 애도했다.

지난 9일 서울역 광장에서 봉행된 용산참사 희생자 영결식. 불교인권위원장 진관스님이 희생영가들 앞에서 헌화하고 그들의 넋을 추모했다.

弔詩·분향·헌화 등 진행되자 여기저기 ‘울분’

법안스님 “사회풍조 개선, 비극 재발 막아야”

영결식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 한명숙·이해찬 전 총리, 민노당 강기갑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정동영 의원, 문정현 신부 등이 참석했다. 불교계는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법안스님, 불교인권위원장 진관스님,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가섭스님 등이 참석했다.

영결식은 개식사와 희생자 약력보고, 경과보고, 조사, 조시, 조가, 진혼무, 유가족 인사, 분향 및 헌화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시민들은 ‘살인개발 중단하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등의 피켓을 들고 저마다 구호를 외치며 현 정부를 규탄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울분을 토해냈다. 김정환 시인은 조시(弔詩) ‘산 아내가 죽은 남편에게’를 읊으면서 ‘오 우리 애들 아빠, 난데없는 불에 타죽으며 얼마나 뜨거웠으리…당신이 떠난 자리 홀연 어지러운 세상이 되고 역사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아우성이 되었다’고 했다.

영결식을 마친 운구행렬은 유족과 참석자 등이 뒤따른 가운데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 앞까지 약 3km 구간을 이동했다. 유가족들 뒤를 잇는 사회각계의 인사들 대열에는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도 동참했다.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에 도착한 운구행렬은 송경동 시인의 조시, 문정현 신부의 조사, 진혼굿, 분향·헌화 순으로 2시간 동안 노제가 치러졌다. 이후 고인들 시신은 고 전태일 열사가 묻힌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 저녁 늦게 안장됐다.

영결식 내내 자리를 지킨 법안스님은 “용산참사 희생자들은 자본논리를 최우선으로 삼는 우리 사회 그릇된 통념을 비추는 상징이나 다름없다”라며 “불교계가 사회소통 창구를 강화해서 잘못된 사회풍조를 개선시키고,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정은 기자 tomato77@ibulgyo.com

“새해맞이, 이제 사찰서 보냅시다”

본지 울산지사 ‘영남알프스 템플스테이’ 성료

“영남알프스가 스키장입니까? 펜션입니까? 그럼 절에서 운영합니까?”

불교신문 경남동부·울산지사가 주관한 경인년 신년 해맞이 및 영남알프스 템플스테이가 열렸다. 지난해 12월31일부터 1월3일까지 3박4일간 진행된 영남알프스 템플스테이에는 각 지역 불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템플스테이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됐다. ‘영남알프스’가 어디냐는 문의가 많았던 것이다. 울산지사가 템플스테이를 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영남알프스는 동남내륙의 7개 고봉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산 지붕을 가진 기암괴석과 고산준령이 어우러진 곳을 통칭한다. 영축총림 통도사, 사명성지 표충사, 관음삼존 벽화로 유명한 신흥사, 도의국사 창건 도량 석남사, 일연선사 사적지 운문사 등 유서깊은 천년고찰이 자리하고, 웅장한 산세 속의 신비한 얼음골과 여성적인 산세 속에는 엄마 품속같이 포근한 배내골이 있는 지역이다.

울산지사가 이 지역에 관심을 갖는 까닭은 새해 해맞이를 보기 위해 대부분 바닷가로 향하는데, 해돋이와 함께 불교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는 현실 때문이었다. 특히 불자라면 사찰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반영됐다. ‘영남알프스’가 적격이라는 판단의 근거다.

불자들은 12월31일 울산 등룡사에서 송년법회를 거행하며 템플스테이의 첫 발을 내딛었다. 해수관음 기도도량이 즐비한 울산지역 사찰을 순례한 불자들은 다음 날 새벽 경인년 첫 해의 감격을 만끽했다.

이후 신년 맞이 삼사순례에 들어간 불자들은 울산 석남사와 동축사, 청도 운문사를 찾았다. 이와 함께 나머지 기간 동안 영축총림 통도사, 밀양 표충사, 양산 내원사, 울산 신흥사 등 영남알프스에 속해있는 사찰들을 두루 참배했다. 3박4일 동안의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자들은 새로운 희망을 맛봤다.

영남알프스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삭도가 설치되고 관광자원으로 개발될 계획이다. 불교 성보로 가득하며 사찰 경내지가 대부분인 영남알프스 탐방을 하며 불자들은 “우리가 불지성산(佛之聖山)을 지켜내자”고 다짐했다.

가족과 함께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박진성(17, 서울 신정동)군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주 많은 경험을 했다”며 “진정한 불자가 되는 계기가 된 템플스테이에 많은 분들도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병은 경남동부·울산지사장

“과학 발달할수록 佛法 위대함 알것”

대중결사, 박문호 박사 초청 ‘뇌와 의식…’ 강연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진오스님)는 2010년을 여는 아카데미를 대전에서 개최했다. 대중결사는 지난 11일 대전 만불선원에서 회원과 불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문호 박사를 초청하여 ‘뇌와 의식, 그리고 불교’를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박문호 박사는 〈뇌, 생각의 출현〉의 저자로,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통섭적 입장에서 뇌과학을 연구하고 있다. 박 박사는 “인간의 감각과 의식에 대해 불교만큼 자세하게 설명한 종교가 없다”며 “과학이 발달할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서 개최됐던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아카데미는 2010년부터 지역 스님과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을 찾아가는 아카데미로 운영된다.

한편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 2월 아카데미는 도법스님이 이끌고 있는 움직이는 선원의 야단법석에 동참해 한국불교에 대한 고민과 나아갈 길에 대한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시영 충남지사장 lsy@ibulgyo.com

생명나눔실천본부 올 사업계획 발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스님)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영화배우 장동건 씨 등 9명의 생명나눔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거리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생명나눔문화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10년 사업계획을 밝혔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매월 한차례씩 생명나눔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거리캠페인을 개최하고 스님과 유명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장기기증 릴레이, 공익광고 제작 등을 통한 2010년 한해 동안 장기기증 희망자 2500명,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3500명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조계종 포교원의 협조를 통해 생명나눔 회원이 조계종 신도로 등록할 경우 신도교무금 가운데 절반은 생명나눔으로 후원하게 되고 신도증 소지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24일 제3회 희망걷기대회를 비롯해 한다솜 음악회(6월10일), 장기기증 세미나 개최(7월8일), 장기 및 시신 기증자를 위한 천도재 봉행(10월3일), 난치성 소아암 어린이돕기 자선음악회 개최(11월중) 등 중앙본부와 전국 각 지역본부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용산참사 타결’ 불교역할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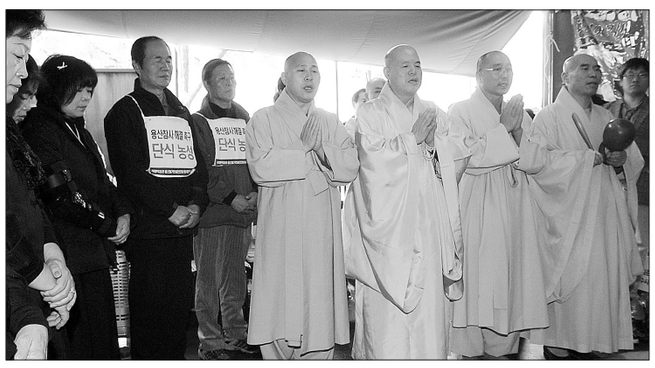
총무원장 자승스님, 李 대통령 만나 해결 주문

수경·명진스님 등 나서 원만 해결 위해 노력

1년 가까이 해결점이 보이지 않았던 용산참사 문제가 타결되기 하루전인 지난해 12월29일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은 이웃종교 협상자문단과 서울시측 인사들을 접촉하면서 막판협상에 총력을 기울였다. 혜경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의 강한 의지와 여러 스님들의 역할 속에서 힘을 얻어 협상이 급진전된 것”이라며 겸손해했다. 스님은 영결식을 봉행한 뒤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웃종교계 지도자들과 소속된 ‘용산참사 합의이행위원회’를 통해 유가족위로금 피해보상금 등에 관한 합의내용이 여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용산참사 국면에서 종교계 역할은 컸다. 가톨릭측이 미사를 통해 유족들에게 마음에 위안을 줬다면 조계종 중진급 스님들은 참사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서슴지 않았다. 참사를 규탄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국법회(2009.2.5)를 대대적으로 봉행했다. 시국선언(2009. 6.15)을 하고 영산재(2009.3.9)를 봉행함으로써 용산의 안타까운 죽음을 세상에 알리면서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지난해 11월4일 제33대 총무원장 취임을 하루 앞두고 첫 외부 공식일정을 용산참사 현장방문을 택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행보는 용산참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2월 중순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총무원장 스님은 용산참사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취임 직전인 지난해 11월4일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원만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도 유가족들을 여러차례 만나 위로하며 양보와 타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도 유가족과 유대관계를 갖고 용산참사 원만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지난 9일 영결식과 노제에서도 문정현 신부와 나란히 서서 희생영가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끝까지 지켰다.

하정은 기자 tomato77@ibulgyo.com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환영”

종평위, 학내 종교자유보장 인권향상에 기여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혜경스님 손안식)는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17일 발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종평위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존중하며 종교행사참여와 대체과목이 없는 특정 종교교육을 금지하고 있다”며 “학내 종교자유 보장은 종교평화 공감대 형성과 종교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종평위는 또 “학생들이 올바른 종교관을 배울 수 있는 종교교육과 함께 종교평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종교평화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에 지지를 표명하며 반드시 제정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정은 기자

세상을 위한 불교

대한불교진흥원 부설

대원불교문화대학

|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 |

(구 대원불교대학)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대원불교문화대학 학사관리처**
–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3층
▶제출서류 | 최종학교 재학 및 졸업증명서 1부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www.daewoncollege.kr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전형방법 | 서류전형(심사 후 개별통보)
▶모집기간 | 2010년 1월 4일 ~ 2010년 2월 28일

=> 자세한 사항은 **대원불교문화대학 학사관리처**
(전화 : (02) 707-10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학 원

【 모집 학과 】

■ **불교심리상담학과정** [대학원 PRE-CERTIFICATION COURSE] (00명)
※ 교과과정 (2년 4학기제 / 한 학기 3과목 수강)
– 유식학과 상담 / 심신통합 이론과 실제 /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
– 자아초월심리와 상담 / 부부 및 가족상담 / 대승불교경전과 상담
– 집단상담Ⅱ / 명상과 심리치료Ⅰ (MBSR · DBT · ACT · MBCT · MBSC)
– 개인상담 실습 및 지도 / 상담사례연구 및 지도 / 선심리 상담실습
– 명상과 심리치료Ⅱ (음악 · 무용 · 표현예술)
=> 졸업자에 대한 특전 : 불교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수여

※ **강의시간** | 1교시 : 19:00 ~ 20:30 / 2교시 : 20:40 ~ 22:10)
※ **수업료** | 1학기당 400,000원
※ **장학혜택** | 성적우수장학생, 근로장학생, 승려 50% 할인 등
※ **입학자격**
① 본 대학 불교심리상담과정을 이수한 자
② 정규 대학 과정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에서 상담관련학을 전공하여 졸업을 하거나 졸업 예정인 자

불교심리상담사 전문가 자격코스 [POST-CERTIFICATION COURSE]

=> 국제적 대학원 수준의 ‘명상심리상담사’ 양성
(국제적인 불교심리상담 · 치료 전문가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 연계)
=> 불교와 심리상담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워크숍 위주의 토론 강의
※ 불교상담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의 이론과 실제를 확립하고, 교계 사찰 및 단체, 불교상담 관련 교육기관 등에서 불교심리상담에 관한 교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 소양과 전문적 능력을 갖춘 불교심리상담 전문강사를 육성하고자 함.
※ **지원자격**
– 불교 관련 학과 및 심리상담 관련 학과 대학원 석 · 박사 과정 재학 중이거나 졸업자
※ **모집인원** | 00명
※ **이수자에 대한 특전**
– 불교심리상담이론 교재 및 자료집 개발 및 발간 참여
– 교계 상담 현장 지원
– 교계 사찰, 단체, 불교상담 관련 대학 · 대학원, 불교교양대학에 강사 지원
※ **수업료** | 1학기당 500,000원 (전원에게 장학금 및 연구비 등을 별도 지원함)

대 학

【 모집 학과 】

■ **불교인문문화학과** (00명)
불교와 사회철학 입문 / 불교문화콘텐츠의 이해 / 불교와 사회생물학
동양철학의 이해 / 민족문화 속의 불교문화 / 불교미술의 이해
불교의식과 현대음악 / 동서불교문화교류사 등

■ **불교심리상담학과** [대학 PRE-CERTIFICATION COURSE] (00명)
불교심리학 / 상담심리학 / 발달심리학 / 심리검사의 이해
불교상담학 / 성격심리학 / 집단상담Ⅰ / 아비담마와 상담
이상심리학 / 선심리와 상담 / 미술치료 · 음악치료
위빠사나수행과 상담 / 상담면접 및 기술 등
=> 졸업자에 대한 특전 : 불교심리상담사 2급 자격을 수여

■ **불교학과** (00명)
근본불교의 이해 / 중관유식 / 불교의 현대적 이해 / 아함경 강독
원효사상의 핵심 / 불교사회경제론 / 선불교의 이해 / 동서문화교류사
현대의 불교의례 / 불교교리발달사 / 전법교화론 등

※ **강의시간** | 주간반 – 1교시 : 14:00 ~ 15:30 / 2교시 : 15:40 ~ 17:10
야간반 – 1교시 : 19:00 ~ 20:30 / 2교시 : 20:40 ~ 22:10
※ **학과목 이수** (2년 4학기제)
– 학년 구분 없이 한 학기에 총 6과목 이내 수강 가능
(공통 필수 수강 2과목, 전공 필수 수강 2과목, 자유 선택 수강 2과목)
※ **수업료** | 1학기당 300,000원
※ **장학혜택** | 성적우수장학생, 근로장학생, 승려 50% 할인 등
※ **입학자격** | 정규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